

WWW.GONGJU.GO.KR

흥미진진  
공주  
2025년 8월호



푸른 녹음이 어우러진 마곡사 징검다리 폭포 | 사곡면 마곡사로 966

##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 간담회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가 7월 14일 오후 의장실에서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 반대투쟁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달희 의장과 반대투쟁위원회 임원진, 공주시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물론 공주시 관계자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 임원진들은 “덕지리는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살아온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은 지역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우”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주민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회가 주민들의 반대 요구를 관련 기관에 명확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달희 의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사안이 지역환경과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예술공간 전시 신청 안내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 전경(2025년 6월 전시작품)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은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에 방문한 시민에게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 신청대상 : 관내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예술가
- ◆ 전시기간 :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의회사무국 의정팀 방문 신청
  - 전시예정일 2주 전까지 신청접수
  - 자세한 전시 일정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 신청제한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 단체, 종교에 대한 광고, 선·포교를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
  - 공익 실현에 부합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문의 : 의회사무국 (041-840-8043)

## 안동시의회 도시경제위원회 우호교류 방문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가 7월 14일 자매결연도시인 안동시의회 방문단을 맞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의회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안동시의회에서 기획했으며, 도시경제위원회(위원장 김상진) 소속 의원 8명과 사무국 직원들이 공주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단은 공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단과 환담을 나누며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방안 및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회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공주시의회의 운영현황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진 도시경제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공주시의회의 선진 의정활동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 도시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로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달희 의장은 “자매결연도시 의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와 안동시는 2005년 자매결연을 계기로 오랜 기간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하반기 공주시의회 회기 운영계획 안내

월별	회 기	주 요 내 용	비 고
8~9월	제260회 임시회 8. 25. ~ 9. 8. (15일간)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2025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을지연습 (8. 18. ~ 8. 21.)
10월	제261회 임시회 10. 20. ~ 10. 30. (11일간)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25년 시정에 관한 질문 - 2026년 출자·출연안 심의	추석 연휴 (10. 3. ~ 10. 9.) 백제문화제 (10. 3. ~ 10. 12.)
11~12월	제262회 정례회 11. 20. ~ 12. 12. (23일간)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제2차 정례회

※ 위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정활동 이모저모



의회운영위원회 (6. 4.)



행정복지위원회 (6. 5.)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 6.)



산업건설위원회 (6.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 11.)



공주시의회 하반기 승진자 임용식 (7. 1.)

##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

공주시의회 의원  
이상표



지난 9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복잡한 소회를 느낀다. 행정사무감사는 헌법과 법률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집행부 견제·감시의 신성한 책무다. 12명 의원들은 11만 시민의 시간을 대신한다는 소명 아래, 하루 한 시간을 1만 시간의 깊이와 밀도로 채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았다.

이번 감사를 통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민원서비스 만족도'와 '종합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한 현실은 행정의 시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경고였다. 매년 수십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세출 절감 노력 부족으로 삭감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은 재정 기강의 해이를 드러냈다. 교통사고·생활안전 분야는 수년째 전국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러 있고, 정보공개 평가는 '보통' 수준으로 시민의 알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만족하는 안일함, 부서 간 칸막이에 갇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직성이 자리했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시의 저력을, '야간관광 특화도시' 지정과 '도시재생사업 우수상' 수상은 미래 성장 동력의 가능성을 명백히 보여줬다. 문제는 이처럼 입증된 혁신 역량이 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는 쓰이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혁신이 일부 부서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정 전반의 문화를 바꾸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

첫째,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제 '얼마의 예산을 썼다', '몇 건의 사업을 했다'의 보고는 의미가 없다. 스마트팜을 지원했다면 농가 소득이 얼마나 올랐는지, 브랜드 개발을 도왔다면 매출이 얼마나 뛰었는지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시민의 삶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둘째,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산사태가 난 후에 임도를 복구하고, 민원이 터진 후에 악취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재해위험 지도를 만들어 위험 구간을 미리 보강하고 상습 위반 업체를 특별 관리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결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지체없이 적용하여 재난안전수당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셋째, '부서 이기주의'를 넘어 '시민 중심의 협력'을 이뤄내야 한다. 전통시장의 교통안전 문제는 경제과와 교통과, 안전총괄과가 함께 풀어야 한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오직 '시민의 편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할 때 비로소 행정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

공주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집행부가 완전히 개선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동시에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공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동반자가 될 것이다.

'성과 중심', '선제적 위기관리', '시민 중심의 협력'이라는 원칙이 시정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집행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원칙을 바로 세울 때 의회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주시의 미래다.